



2015년 4월 1주차

■ 연구원 소식

○ 동북아역사재단 사업설명회 참석 및 협약체결

: 본 연구원은 지난 23일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실시한 선정단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요즘 안전 최우선이 최고의 화두인 가운데, 재단측에서는 안전관련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약정 체결을 통해 올해에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39회 문화강좌 실시

: 2015년 첫 문화강좌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문화강좌 첫 시작을 성황리에 마친거 같습니다. 특히 강의를 열정적으로 위트있게 해 주신 문윤걸 교수님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문화강좌는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열의를 앞으로 계속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금주 연구원 주간일정

[2015년]

- 03월 30일 : 주간회의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31일 : 선비문화관 콘텐츠구축사업 정산보고, 일꾼쉼터 협약체결
- 04월 01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4월 02일 : 동북아역사재단 평가실무 설명회 참석
- 04월 03일 : 도서 DB기반 구축

■ 역사속의 오늘

○ 대한민국 반나절 생활권 - 2004. 03. 30

: 1992년 착공 이후 12년만에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었다. 1905년 경부선 개통 당시에 17시간이던 것이 지금은 2시간 40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영남지역의 반나절 생활권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2015년 현재 호남 고속철도 시대가 개막되면서 대한민국은 비로소 반나절 생활권을 이루게 되었다. 아침과 점심을 광주에서 먹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토끼를 잡을지는 미지수다.

○ 행동으로 얻은 불기의 자유 - 1920. 03. 31

: 형틀에 묶여 불기 짝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모습! 사극을 보면 익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태형은 이미 갑오개혁 때 비인간적 처벌이라 하여 폐지되었지만, 일제는 조선인에게만 적용할 조선태형령을 제정하였다. 정작 일본 자신들은 1882년에 사라졌었다. 여하튼 1919년의 3·1운동으로 일제는 조선태형령을 폐지하였다. 자신들의 권리와 대의를 위해 행동할 때 역사는 변화하니까...

○ 가벼운 거짓말로 유쾌한 하루를 - 04. 01

: 만우절은 그 유래가 어쨌든 간에 오늘날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으로 웃음을 주는 날로 인식되고 있다. 해외 유명 언론에서는 다소 황당한 만우절 특집 기사를 게재해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혼란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1957년 영국 BBC뉴스가 스위스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나무에 스파게티가 열렸다고 하며 스파게티를 수확하는 농부의 사진을 함께 보도한 일화가 있다. 어찌되었든 적당한 선을 지키며 농담과 거짓말을 해 보는 것이 우리 삶에 활력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 **바람둥이의 대명사 카사노바 출생 - 1725. 04. 02**

: 1725년 4월 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그 이름도 유명한 '카사노바'! 화려한 여성 편력과 호색한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카사노바의 전부가 아니었다. 19세에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외국어에 능통했으며 문학과 신학, 법학, 예술 등 다방면에 재능을 보인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평생 40여권의 책을 집필했고 프리메이슨의 일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유인으로서,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복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다.

○ **진실을 마주하는 아픔, 제주 4·3 - 1948. 04. 03**

: 1년 열두달 중에 유독 가슴 아픈 달은 봄에 모여 있다. 4월의 4·3사건, 5월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의 6·25전쟁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이란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제대로 된 역사청산이 없다보니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은 아닐런지... 만개한 봄꽃의 향연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사라 없어지는 건 한순간 - 2005. 04. 04**

: 2005년 4월 4일 강원도 양양에 산불이 발생했다. 수많은 산불 중에 특히 양양 산불이 유명세를 치른 건 천년고찰 낙산사를 비롯한 각종 문화재의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이 식목일이라는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피해는 컸다. 숲을 가꾸는데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 잣더미가 되는 건 한순간이었다.

○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 1964. 04. 05**

: 1964년 4월 5일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을 남긴 더글라스 맥아더가 세상을 떠났다. 인천상륙작전으로 한국전쟁 전세를 뒤집은 영웅이라는 측면과 한반도에 핵폭탄 투하를 통해 확전을 하려한 전쟁광이라는 측면이 있다. 결과를 중시하고 과정을 경시하는 사고야말로 우리가 지양해야 할 점이다.